

2022년 11월 0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3편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66(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11장 1~11절(구약p.771)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3.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5.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7.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9.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10.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11.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

세상의 사람들은 아는 것만 큼 믿고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는 것, 곧 지식은 어떻게 만 들어집니까? 직접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어 보고, 듣고, 만져진 것, 경험을 토대로 지식이 쌓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 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

의 도움의 손길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게 된 인생의 운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영적 지식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 소발은 인간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7~8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도 나누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꾀에 빠져 타락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잊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뿐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을 분별하며 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계시하시어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죄인 된 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하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지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떠난 자들은 결국

2.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약함과 한계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크고 강하다고 느껴지는 존재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래전부터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해 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 모든 문화의 시작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에는 꼭 종교적인 것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하나님 대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하자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자연을 오히려 신으로 숭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른 신을 숭배하지도 말고 어떤 것으로도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6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대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돈과 같은 물질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인생을 충분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삶을 충분하게 채우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

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 참 지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지식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이고, 곧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무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생명을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자랑하고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53(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폐 회 / 주기도문